

김영록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온힘 다하자”

진상조사·진실규명 노력 강조
무안공항·서남권 발전전략 주문
에너지공대 정상지원 강력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온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이를 통한 서남권 발전 프로젝트를 재점검하는 등 전남 미래비전을 확실히 짚어나가자”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5·18 정신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함평빛그린산단 활성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정상 지원, 양과 수입 철회 건의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해남 예비군 훈련장 인근 야산에서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되는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상이 진상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당시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으로서 진상조사와 진

실규명에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한 서남권 발전,

나아가 전남 미래발전 비전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현안은 서남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남 전체 발전 비전과 연결돼 있다는

생각으로 후속계획을 조속히 세워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도민에게 올린 큰절은 이러한 간절함을 담은 것으로 도청 가족들도 함께 나서

서 해결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목포가 해상케이블카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을 서두르고, 이를 진도는 물론 목포 삼학도·원도심까지 연결을 추진하는 등 전남 서남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프로젝트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함평 빛그린산단이 국가산단이라고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차전지를 비롯한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함평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 압박과 관련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별개 사안으로, 적자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미국 첨단 산업을 이끈 보스턴 올린공대나 뉴욕 코네티컷 대학 한국에너지공대는 국내 에너지 산업을 이끌 특수대학이다. 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백년대계를 위해 정상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양과 수입 방침과 관련해서는 “만생종이 출하되면 수입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정부가 단기 시세만 보고 수입을 성급하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민단체와 연계해 수입방지를 철저히 강력히 건의하라”고 독려했다. /정근산 기자

‘새 출발’ 전남연구원 설립 본격화

도의회, 개정 조례안 오늘 처리
독립성 등 지속가능 발전 담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되는 전남연구원 설립이 본격화된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강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 보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명칭은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고 ▲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연구원의 기능 ▲재산운영 및 관리 ▲기금 설치 ▲출연기관 연계 ▲광주광역시와 상생연구 활성화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법률관계, 임직원, 기금 등 포괄적 승계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차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역문제에 대해 아픈 소리도 과감없이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창의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연구원이 농수산·균형발전 분야 등 전남지역에 특화된 연구와 미래지향적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를 최종 의결했다. 이 사회의 결정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8년간의 통합연구원 체제를 마감하게 됐고, 기존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각각 분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근산 기자

“정체성 확립·왜곡 청산 근본 해결책”

5·18 헌법 수록 목소리 잇따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18 정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류

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5·18 정체성 확립과 왜곡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실현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 정부는 5·18을 둘러싼 갈등을 멈추고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마땅하다”며 “5·18 43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더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함을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원포인트든, 대폭 개헌이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개헌안에 빨리 합의할 수 있다면 그 개헌에 5·18 정신을 포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서삼석 “입주대상 확대,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자 전무한 가운데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

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 및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이후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16만4,486㎡ 중 76%인 12만4,955㎡가 미분양으로 추계 장 면적 17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12월 준공 후 입주한 기업은 2개뿐이며, 이마저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민간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미분양부지를 모두 입

대했다면 2022년 12월 기준, 면적 대비 월 7,000만원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입주 조건이 핵심산업으로 국한돼 광양항도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며 “제한적인 입주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형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대원 기자



Sh수협
정직한 수산식품

별海별味

별해별미 양갱 3종 선물세트 |

별해별미 양갱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 속, 우리 바다의 건강한 맛을 양갱에 담았습니다.

www.shshopping.co.kr
수협쇼핑과 sh수협마트에서 구매하세요

준법감시심의회(안)-제230107호(2023.03.14)

연출사진입니다.

[18개입 선물세트]
45g x 18개입 (810g/2400kcal)

[12개입 선물세트]
45g x 12개입 (540g/1600kcal)

[5개입 세트(3종)]

해삼·홍삼 양갱 45g x 5개

감태·감귤 양갱 45g x 5개

다시마·말차 양갱 45g x 5개